

미-이란 협상 타결, 스페이스X 혼풍에 증시 환호, 기술주 강세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종전 기대로 위험선호 뚜렷, 기술주 중심의 강세

- 미 증시는 DOW +0.92%, S&P500 +1.65%, NASDAQ +3.07% 상승. 이란과의 종전 합의 타결 소식에 환호하며 기술주, 통신 서비스, 산업재 등 강세, 국제유가 하락 영향 에너지주는 약세
- 위험선호심리 확산에 따라 기술주 반등 뚜렷. 엔비디아(+3.5%) 대규모 회사채 발행 소식 불구 강세, 웨스턴디지털(+16.1%), 마이크론(+10.8%) 등 반도체업종 강세
- 스페이스 X(+19.6%) 상장 이틀째도 강세흐름, 앞서 오픈하이머가 제시한 목표주가 \$190 도 넘어서(\$192.5). 한편, CFRA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신중론, 매도의견 제시(목표주가 \$115)

미-이란 종전 MOU 전자서명 완료, 구체 합의안은 19일 공식서명 이후 공개

- 현지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-이란 종전 MOU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는 소식 발표.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및 미 해군의 즉각 봉쇄 해제 내용에 아시아 증시 상승. 공식 서명은 19일 스위스에서 예정이나, 이미 14일 양국 최고위급 전자서명이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짐
- 다만,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, 동결자금 해제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. 향후 60일간 핵협상을 비롯 입장차 보이는 논점에 대한 협상 추이 주목 필요. 이스라엘 행보 또한 향후 변수
- 국제유가 하락 WTI \$80.7(-4.8%), Brent \$83.2(-4.9%)

유가 영향으로 국채금리 하락했으나, 좋지 못한 제조업 지표

- 5월 산업생산 MoM +0.1%, 전월(+0.9%)·컨센(+0.3%) 하회. 제조업생산 MoM 0.0% 보합, 전월(+0.7%) 대비 부진
- 6월 뉴욕연은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5.7, 전월·컨센 크게 하회. 반면,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지불가격지수는 높아지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속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3.5%	2021년 이후 5년만의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발행 계획 발표. 2년물부터 최장 30년물 (2056년 만기)까지 총 7개 트랜치를 통해 최소 \$20B 규모 자금 조달 예정. 조달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및 차환을 포함한 일반 운영 목적으로 사용 예정
MU	마이크론	+10.8%	6월 24일 실적 발표 앞두고 TD코웨이 목표주가를 \$660→\$1,500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주가 급등. 3분기 예상 EPS를 월가 컨센서스(\$20) 상회하는 \$23로 상향
FLY	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	+4.7%	키뱅크의 동사와 로켓랩(+6.7%)에 대한 투자이건 '섹터 비중'→'비중확대' 상향 조정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. 스페이스X(+19.6%) 상장 당일 급락 분 반발매수세 유입. 한편 스페이스X는 이틀째 상승중
WDC	웨스턴디지털	+16.1%	모건스탠리가 동사와 씨게이트(+9.4%)를 '최선호 비중확대(most-favored Overweights)' 종목으로 선정하며 목표주가 대폭 상향. 웨스턴디지털 \$488→\$650, 씨게이트 \$767→\$1,035
UAL	유나이티드항공	+2.6%	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로 국제유가 급락. 항공유 등 유류비 비용 절감 수혜 기대감에 항공주 동반 상승
FOXA	폭스코퍼레이션	-15.2%	폭스는 로쿠(-1.9%)를 주당 \$160, 기업가치 \$22B에 인수하기로 합의. 다만 로쿠 주가는 지난주 피인수설에 주가 폭등했던 가운데 전액 현금 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주 실망감 유입되며 주가 하락